

작은 꽃이라던가 당초와 같은 모티브가 들어 있는 페이즐리

페이즐리(paisley) 모양이라던가 경사(更紗) 모양은 동양이 원조격이다. 페어아일은 북유럽의 수편 스웨터가 원조로써 심플한 형태를 한 다채로운 꽃무늬는 동유럽의 자수 블라우스가 원조이다. 신선한 채색의 윤곽을 검정색으로 한 꽃무늬의 프린트는 러시아의 농민복이라던가 스카프가 원조이다. 이들 에스닉한 모양은 다채로운 타입이다. 아름답다. 크림색이라던가 갈색의 알파카 니트 등, 흙과 같이 에스닉한 것은 아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모양과도 다르다. 에스닉한 소품은 멋내기의 포인트이다. 넥크 레이스, 이어링, 브레스레드, 벨트라던가 벽클, 스카프, 모자, 구두 등의 진짜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 에스닉은 서구인으로부터 본 비크리스트교 문화권의 사물인 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나라도 일본도 중국도 포함시켜 버린다. 우리 나라에서 본 에스닉은 이국적인 취미라고 함은 어떨까? (야말화지(野末和志))

에스닉(ethnic)은 인류학적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에스닉룩이라 함은 민속의상 그 자체와 염색, 직물, 자수 등에서 힌트를 얻어 소박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을 말한다. 에스닉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크게 붐을 일으켰다. 포클로어와 에스닉은 똑 같은 민속풍을 표방하지만 기독교권 이외의 지역에 한정된다. 왜냐하면 종교적 민속품이며 비기독교적인 부분을 표방한다. 따라서 중근동 종교적 의상, 잉카문양, 인도네시아 바틱, 인도의 사리 등이 디자인 소스가 된다.

페이즐리(paisley)는 페르시아, 인도에서 생긴 식물의 무늬인데 1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페이즐리시에서 모직물에 많이 유행되었다. (스코틀랜드의 페이즐리에서 만들어진 페이즐리 솔에 자주 사용되는 양모 직물로 문양은 다양하다)

페이즐리는 곡옥(曲玉) 모양을 하고 있고 그러한 형 속에 작은 꽃이라던가 당초와 같은 모티브가 들어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페이즐리 모양은 동양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출생은 인도 대륙의 북서부의 카시미르이다. 그래서 페이즐리 모양인 것을 카시미르라던가 카시미아 페이즐리라고도 부른다. 오리지널은 다채롭고 화려한 털이 있는 모직물의 솔 모양이다. 카시미아 솔을 동인도 회사에 의하여 유럽으로 가져간 것이 일대 유행을 이루었다. 처음에는 영국에서 그 다음은 프랑스에서도 그것을 제조하는 사람, 그것을 발전시켜 가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영국은 스코틀랜드의 페이즐리 마을도 그러한 솔을 번창하게 제조한 곳이다. 그러한 페이즐리가 번창했던 점에서 페이즐리 모양이라고 부르게 된 듯하다. 페이즐리 모양의 프린트 옷감이라고 하면 에토로를 떠올릴지는 모르나 이러한 페이즐리 모양은 섬머 드레스 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신사들에게는 넥타이 무늬로써 프린트나 자카드직에 친숙하다. 빨강 바탕에 녹색으로 물들인 울 프린트의 넥타이는 멋지고 화려하다. 검정 바탕에 베이지로 짜서 나타낸 실크 자카드직의 넥타이는 화려하다. 이들 넥타이는 파티복장으로써 적합하다.